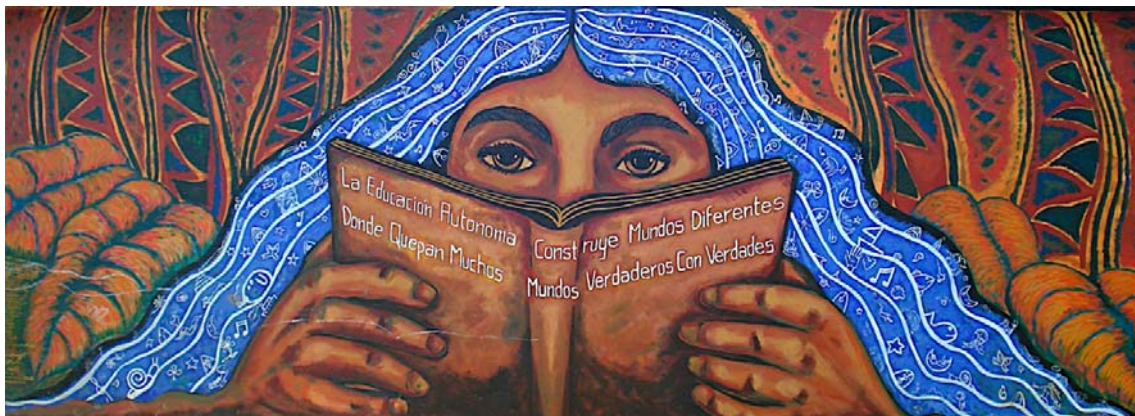


■ 멕시코 사파티스타 원주민들의 벽화

김 경 은



○ 누가 그리는가?



벽화를 그리고 있는 원주민 소년

벽화의 나라 멕시코. 지금도 그곳에는 관공서나 지하철이나 대학이나 일반 건물에 가면 손쉽게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멕시코에 전혀 다른 벽화가 나타났다. 바로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사파티스타 벽화이다. 이 벽화는 지명도 높은 예술가들이 공공의 벽에 펼쳐놓은 공인된 ‘멕시코벽화’하고는 그 태생부터가 다르다. 이름 없는 민초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허름한 벽돌집 외벽에 들쭉날쭉 알록달록하게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파티스타 벽화는 집단적인 산물이다. 주민 회의에서 벽화 제작 계획을 세우고 도상적 이미지를 결정하면 외부인, 즉 멕시코나 기타 국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기술적인 지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원봉사자들은 재료를 공급하고, 안료의 색상을 섞는 법, 벽을 다듬는 일, 도안을 격자무늬를 이용해 벽에 옮기는 것,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법 등을 도와준다. 주민들이 원하면 간단한 스케치도 해주고, 벽화 제작에 참가한 주민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벽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민들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주민들을 격려할 뿐이다.

이처럼 집단적인 형태로 제작되는 사파티스타 벽화는 제작과정의 협동성이 벽화 자체보다, 벽화의 예술성보다 중요하다. 벽화가 개인의 비전보다는 주민들의 경험과 희망, 역사 등 지역사회 공유 자산의 예술적 표현이다.

○ 왜 그리는가?

왜 벽화를 그리느냐고 물으면 사파티스타는 이렇게 대답한다. “벽화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벽화는 우리의 존재 방식, 문화, 토착세력으로서 저항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상 사회운동은 대부분 시각적인 언어를 이용했다. 그림을 통하여 이상적인 꿈과 비전을 선전하기도 하고, 압제세력에 대한 저항심을 부추기거나 충만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쿠바의 벽화들이 그러하다. 특히 사파티스타처럼 문맹인이 많은 지역에서 그림은, 공동체 성원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젊은이들에게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의 사건을 교육하는 매체이다.

그러나 사파티스타 벽화의 문구는 대부분 원주민어가 아니라



마르크스 부사령관과 아이들. 그림 위에 “많은 세상이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복종하면서 명령한다.”는 문구가 선명하다.

스페인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파티스타 원주민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벽화는 원주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말하고 있다. 외부인들에게 사파티스타의 세계관과 정치관과 문화를 설파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무엇을 그리는가?

사파티스타는 자율과 자치를 원한다. 그러나 독립은 아니다. 사파티스타는 민주주의를 바란다. 그러나 서구식 대의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러면 사파티스타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데올로기나 국가라는 틀에 얽매인 현대의 정치적 용어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사파티스타는 전통적 세계관과 가치를 준수하고자 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어제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 따라서 벽화에서도 이러한 전통과 토착적 세계관의 이미지가 중요한 도상으로 등장하는데, 마야의 해와 달 신화와 옥수수 같은 이미지들이 바로 그것이다. 사파티스타는 벽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난한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파티스타 벽화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도 자주 볼 수 있다. 가끔은 체 게바라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멕시코혁명에서 자율적 자치를 실천에 옮긴 에밀리오 사파타(Emilio Zapata)이다. 사파티스타(Zapatista)라는 말도 사파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파티스타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달팽이. 오른쪽 그림 하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예전 현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가슴은 달팽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마야 신화의 옥수수 인간을 표현한 벽화. 옥수수는 이 지역에서 생명의 원천이다.

의미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저항의 역사를 담은 이미지 또한 사파티스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쟁 정신을 북돋아준다.

사파티스트 벽화에는 동화책의 삽화처럼 알록달록하고 설명적인 이미지들이 많다. 이는 원주민 미술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벽화의 기능에서 보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파티스타는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데, 혁명적이고 민중적인 교육체계는 멕시코정부가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과 공동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교육한다. 사파티스타 민



에밀리오 사파타



체 게바라 벽화 앞을 지나는 초칠(tzotzil) 원주민

족해방군의 교육위원회 대표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모범적인 인간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돈을 벌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성원들에게 혁명 교육을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육은 매우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마음과 양심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파티스타 벽화에서 가장 혁명적인 이미지를 꼽는다면 여성이리라.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라 강인하고 자주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 치아파스 원주민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인 전통을 상기하면, 이러한 여성상에서 전통 문화와 새로운 사고를 융합하려는 사파티스타들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파티스타는 원주민의 세계관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전통을 추수하지는 않는다. 그 예가 사파티스타의 여성 관련법이다. 여성들이 작성한 이 법은 의사결정, 결혼,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명백히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여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법으로 여성의 삶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 어떤 평가가 가능한가?

오늘날의 미술은 ‘순수의 늪’에 빠져있다. 오랜 세월 동안 주술과 종교, 권력과 부에 봉사하던 미술은 독립을 선언하고 절대 자유를 획득한 이후 미술 고유의 영토 개척에 헌신해왔다. 그러나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칼을 휘두르는 여성 사파티스타



‘자유’, ‘토지’, ‘평등’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사파티스타 어린이들. 창문에는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들의 영혼이다”고 쓰여 있다.



치아파스 주 오벤틱(Oventic)에 그려진 사파티스타 벽화

순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회와 대중이라는 넓은 별판을 포기해야만 했다. 더러는 ‘박제된 미술’을 부정하고 미술의 새로운 존재방식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들 역시 성공을 거두면 순수의 주류에 편입하여 냉장되어 버렸다.

이에 반해, 사파티스타 벽화와 같은 미술운동은 잠시 반짝하다 사라져버린 조형적 실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완강한 흐름이다. 대중 속에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태어났고, 그 속에 든든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다. 벽화는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활하는 거리의 활짝 열린 공간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록 조형적으로나 미학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하

더라도 사파티스타 벽화는 갖지 못한 자, 억눌린 자들의 격렬한 권리 주장이며, 잘못된 사회를 향해 던지는 조형 언어이며, 인간의 숨김없는 장식본능의 발로이며, 우리만의 미술을 갖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적극적인 염원의 표현이다. 이처럼 사파티스타 벽화는 이념과 희망의 도상뿐만 아니라, 제작 방식에서도 민중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에 우리가 미술책에서 접하는 그 어떤 명작들보다도 건강한 그림이다. 민중과 소통하기 위해 민중이 제작하는 사파티스타 벽화는, 조형적인 새로움과 미학적인 혁신만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계에 사회와 예술의 유기적 관계를 재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장소현. 1997. 『거리의 미술: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미술, 도시벽화』, 열화당.
 폴킹스노스, 이승렬 옮김. 「사파티스타 농민운동 — 자치를 위한 투쟁」.
 - <http://picasaweb.google.com/kai.tsap/ZapatistaArt>
 - <http://www.schoolsforchiapas.org>
 - <http://visualresistance.org/>

김경은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재학
